

「랏셀」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一)

저자미상

이 글은 生田長江의 本問久雄共著 『社會改造의 八大思想家』에서 抄譯함.

一. 랏셀의 哲學

『랏셀』의 社會改造論을 말하기 爲하여 먼저 그의 哲學을 紹介하지 아를 수 없다. 『랏셀』을 本來 數學的 哲學者이다. 卞라셔 彼の 社會觀은 總히 그 基礎을[를] 數學的 立場에 置하였다. 일즉히 엇더한 學者가 『랏셀』을 評하여 彼の 社會論은 恰似히 이것을 『뉴턴』과 如한 科學者가 그 科學的 原理를 應用하여 社會問題를 말함에 比할 수가 있다는 것은 至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彼は 『스피노자』와 같이 幾何學의 方法으로써 그 哲學論을 組織하고 更히 進하여 科學的, 客觀的 態度로써 事物을 研究하였다.

彼は 人生社會의 問題를 解決함에 當하여셔도 恒常 幾何學上의 線 又は 平面 等を 研究함과 如한 研究의 態度를 通用하였다.

생각하건던 『랏셀』의 立場은 簡單히 말하면 十七世紀 又は 十八世紀의 科學的 哲學을 今日의 形式으로 改造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랏셀은 最初 數學을 學하여 이것을 論理的으로 攻究하고 여게 對한 만흔 數學書를 著術하였다.

그러나 彼の 數學은 普遍으로 一般的 數學과는 本質的 相遠가 잇섯다. 卽 一般으로 數는 本來 直觀에 屬하는 것으로 認定되얏스나, 彼は 全然히 이것을 概念的 形式으로 說明하고 解釋코져 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그리하여 『랏셀』의 이 思素을 가장 端縮으로 表顯한 것은 彼の 獄中選集인 『數學哲學概論』이다.--그리하여 彼가 如斯한 傾向을 把持하게 된 根本 原因은 일즉이 『라이푸닛츠[라이프니츠]』의 哲學을 研究한 데에 있다. 다만 彼가 『라이푸닛츠』를 研究함에 當하여 普通의 研究者와 異한 方法을 取한 일은 多數한 哲學史家가 『라이푸닛츠』의 單子論을 本體論으로부터 引導해 온 것에 反하여 彼は 이것을 論理數學의 前提로부터 말한 것이다. 如斯히 『라이푸닛츠』에 關하여 探遠한 研究를 斷縮한 까닭에 彼は 스사로 그 銳敏하게 影響을 受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얏다. 그리하여 그의 思想의 傾向은 一面으로 『스피노자』의

共通하게 되는 동시에 他一面으로는 甚히 『라이푸닛츠』와 共通된 것이다. 엇더한 意味로부터 말하면 『스피노자』에 類似한 싸담에 『라이푸닛츠』에도 共通되얏다고도 하겠다. 엇제 그리나 하면 『라이푸닛츠』와 『스피노자』와는 種種點에서 非常히 本質的으로 類似한 點이 잇섯는 싸담이다. 元來 그 全體가 同一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理性主義, 科學主義라는 點에 잇서서는 甚히 類似點이 만흔 싸담이였다.

如斯히 數學研究로부터 出發하여 『라이푸닛츠』의 研究에서 更히 그 素□으로부터 哲學의 問題를 攻究하는 同時에 『랏셀』은 特殊의 實在論을 哲學上으로부터 主張하게 되얏다.

그리하여 彼の 立場은 스사로 實在論도 되고 多元論도 되얏다. 그 理論의 攻究法은 모다 科學的 精神에 基礎되야 強烈하게 所謂 神秘的 傾向을 排斥 하엿다. 如斯한 結論에 到達하기[는] 싸담에 『랏셀』은 從來의 哲學을 如何히 생각하엿는야 하는 것을 研究할 必要가 잇다. 잇때에 彼は 發布한 만흔 論文에 就하여 □하면 彼は 從來의 哲學態度를 古典的 傳說에 屬한 것이라고 생각하엿다. 如斯히 古典的 傳說은 그 歸着한 바가 만다시 觀念論 又は 唯心論 이였다. 그 一例로는 『세쿠레-』의 哲學을 들 것이다. 그 中心에 表顯되는 가장 큰 特徵은 希臘風의 理性을 信하는 일과 中世紀風의 宇宙를 輕視하는 思想의 包含된 일이다. 이러한 見地로부터 世界를 보다 『我的 概念』에 屬함과 如한 새로운 結論이 產出되얏다. 이 思想이 種種雜多한 바에서 哲學上의 大部分을 占領하엿스나, 그러나 比에 反對와 思想도 또한 一方에 잇서서 今日은 進化論이라는 것으로 表現되얏다.

『랏셀』의 이 思想的 體系 明瞭히 한 것은 彼가 一九一四年 『옥스푸-드[옥스퍼드]』大學에서 試한 『哲學에 在한 化學的 方法』이라는 講演에서 알 것이다. 要하건데 『랏셀』의 哲學은 모든 意味에서 科學的이라는 것이 立認되얏다.